

산단 활력 잃고 노동자 직장 잃어...소상공인 “눈 앞이 캄캄”

위기의 여수산단

〈중〉 지역경제 직격탄

“몇 년 전만 해도 여수 도심이 작업복을 입은 산단 노동자로 북적북적 했는데, 요즘은 발길이 끊겼네요.”

전남 동부권의 구심점인 여수의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침체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여수지역 상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으며, 앞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가 수도룩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 손님들로 분주해야 할 낮 12시에도 식당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최근 찾은 여수산단 인근 주안동의 한 식당에도 무거운 정적만 흘렀다. 주인은 TV를 멍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식당 주인 이은희(여·53)씨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돼 최근 같이 일하던 직원 3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식당의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호황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씨는 “원래는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 자체가 안 보인다”며 “작년 초부터 매출이 점점 줄어들더니 연말쯤 되니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제는 앞이 캄캄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협력업체·일용직도 ‘타격’

산단 노동자 사라진 거리

식당들은 ‘개점휴업’ 상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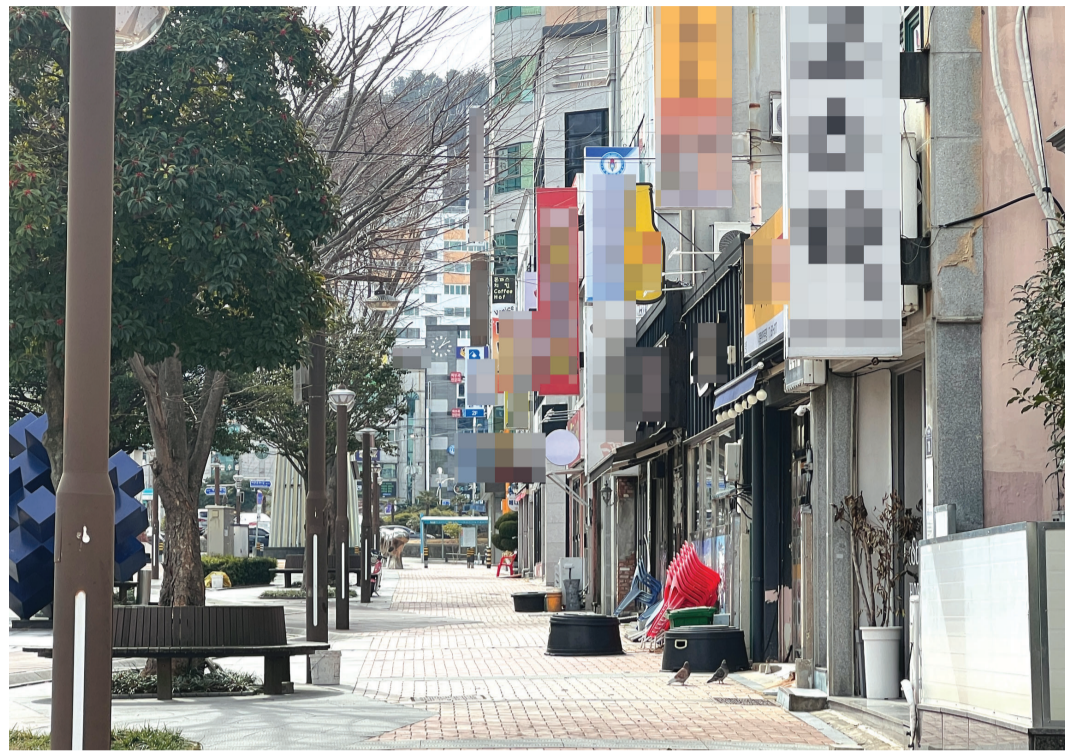
인근 편의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서혜원(여·41)씨도 “산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매출과 손님 수가 반으로 줄었다”며 “고객이 주로 산단 노동자들인데, 일이 없으니 대부분 타지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산단이 활력을 잃고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도 위정되고 있다.

65세가 정년인 LG화학 여수SM공장 노동자 조동희(60)씨는 정년이 조금 남았지만 올해 결국 퇴직을 결정했다. 35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하루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씨는 “혹자가 나와 성과급도 나고 할 텐데 적자가 이어지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SM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재교육을 받고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여수를 떠났다”고 말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여수산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공장을 유지·보수하는 인원만 해도 플랜트 건설 노동자 7000~8000여명이 일할 수 있었다”면서 “공장이 하나 둘 가동을 멈추면서 지금은 절반 이상 줄어든 3000여명만 일하고



여수 지역 원도심인 문수동의 식당가가 최근 낮 12시 점심시간임에도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주가 줄어들면서 협력업체도 타격을 입고, 일용직 노동자는 물론 기능공들조차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산단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선원동, 화장동 일대와 원도심인 신기동 흥국상가 일대로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화장동에서 10년째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평성(36)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산단으로 출장을 온 노동자들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됐는데, 지난해부터 사람 자체가 줄고 손님이 뚝 끊겼다”며 “매출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상권도 죽어버려 주변 숙박업 하는 사람들 모두 분위기가 안 좋다.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출 금리마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대출

을 받아 투자했던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불과 1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여수가 가장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산단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흥국상가 점포는 2019년 165곳에 달했으나 2024년 105곳으로 36% 감소했다. 원도심인 중앙동 진남상가 역시 같은 기간 점포가 390곳에서 329곳으로 줄었다. 2024년 3분기 기준 원도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4.3%로 전남 평균(12.6%)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김미화 흥국상가 상인회장은 “산단의 어려움이 지역 전반으로 번져 지역민 모두 지갑을 닫는 분위기”라면서 “상가 대부분이 최근 2~3년만에 매출 30~40%가 감소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문을 닫은 가게가 수도룩하다”고 전했다.

김검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때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여수 경제가 산단이 힘들어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저금리 때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에 손잡까지 줄어들자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인천 여수시 산업지원과장은 “여수산단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전남도와 함께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정부에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수=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2·3 계엄군,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 5분 48초간 차단했다

내란국조특위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 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남뉴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압축전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 불확실성 안개 걷히면 이제 경제의 시간”

김동연 경기지사, 광주경총 특강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이뤄져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총 조찬 포럼에 참석해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안개가 짙게 끼어 그저 피상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짙은 안개가 걷히고 휴먼발치가 가라앉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이라며 “나타나는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우리 민생이 얼마나 힘들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국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포럼에 가서 영문 명함에 ‘Trust in Korea’ (한국을 믿어달라)라고 적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탄핵 인용, 조기 대선, 정권 교체를 빠르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80년 이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해(1980·1998·2009·2020·2023·2025)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1980년부터 2020년은 경제 위기나 팬데믹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뒤 “경제 위기와 팬데믹 등 극악한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를 빼놓고 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붙었거나, 심지어 역전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만약 내란과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이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십년 퇴보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문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관광제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가부심이 되는 여행

창립 54주년 특별기획

롯데관광이 만든 프리미엄 여행 - 하이엔드

54 HIGH&

비즈니스호텔 / 5성급호텔 / 5성급호텔 / 5성급호텔

전문상담 : 02)2075-3111

대한항공 아테네 특별 직항 전세기

그리스

6천개의 섬과 그보다 많은 신화

그리스 항공 일주 9일

품격 8,390,000 원~

선착순 6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박식 고객 한정 (~2/23 까지)

- 산토리니 특급호텔 2연박 + 크레타 특급호텔 2연박
- 전 일정 7박중 5성급 특급호텔 6박
- 국내선 2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파르테는 신전 View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송아지 코스요리
- 지중해 태양을 담은 산토리니 와이너리 투어

[정부인가조건]

신과 인간의 경계, 카즈베기를 마주하다!

5/25, 6/1, 8, 15, 22, 29 [단 6회]

코카서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3개국 9일

품격 6,390,000 원~

선착순 50만원 할인!

출발일별 30명, 일박식 고객 한정 (~2/23 까지)

- 카즈베기의 낭만 가득한 하룻밤 'ROOMS HOTEL KAZBEGI'
- 트빌리시의 야경 View 레스토랑 'Funicular Restaurant'
- 항공 이동 1회 탑승으로 편안한 일정 구성
- 피트치드 가득한 카즈베기 & 아자트 EASY 트레킹 2회
- 오롯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O쇼핑 & NO음식]

[정부인가조건]

GRAND | HYATT

제주

예약·문의 :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한국서비스대상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 15회 수상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1년 연속수상

가면표현사전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포함 [가이드/가이드]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여행사별 사정)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보단계] ●여행유지 ●여행지제 ●환수권고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얼]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동의를 받음 ●중요구경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 1588-8692 ●최소소유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일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페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 항공, 버스, 페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 항공, 버스, 페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 항공, 버스, 페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